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85 호
| 2020-10 |
2020.05.22.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지만, 업종마다 충격은 상이

- (제조업) 생산 충격의 고용으로의 전달은 아직 크지 않지만 향후 고용 악화에 대비 필요
-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에서 비교적 동시에 충격이 나타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피해가 집중

- 3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감소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82%를 차지(고용보험 가입자: 4만 2,000명 감소, 고용보험 미가입자: 18만 7,000명 감소)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 실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외부 충격에 대해서 신규 채용 조정을 통해 우선 대응
- 3월 기준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는 전년 동기 비교 약 96% 급감(22만명 증가에서 8,000명 증가로 증가폭 급감)

업종별 주어진 상황이 다른 만큼 산업별 변화에 조응하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

- 현재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의 충격과 함께 자동화,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함께 겪고 있음.
- 업종별로 처한 상황과 특성이 다른 만큼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업종별 맞춤 지원 필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일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기존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기존의 인력 양성 체계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 산업 구조의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선 필요

요약

코로나19 발생 후 충격은 업종과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충격 발생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염의 우려 및 감염자 발생에 따른 공장 폐쇄나 선제 예방 조치로 인하여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
-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상품시장의 단절과 연계되면서 수요 충격에 따른 실직 증가와 신규 채용 급감

코로나19의 충격이 도달하는 업종과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고용 충격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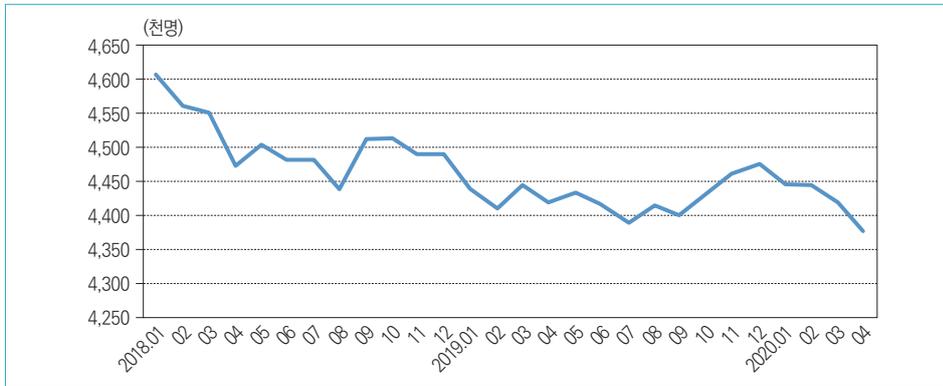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충격 양상은 상이
- 노동시장 지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취약한 부문에서 고용 충격이 먼저 발생

제조업: 생산충격의 고용으로의 전이는 아직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향후 고용 악화에 대비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제조업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가시화 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향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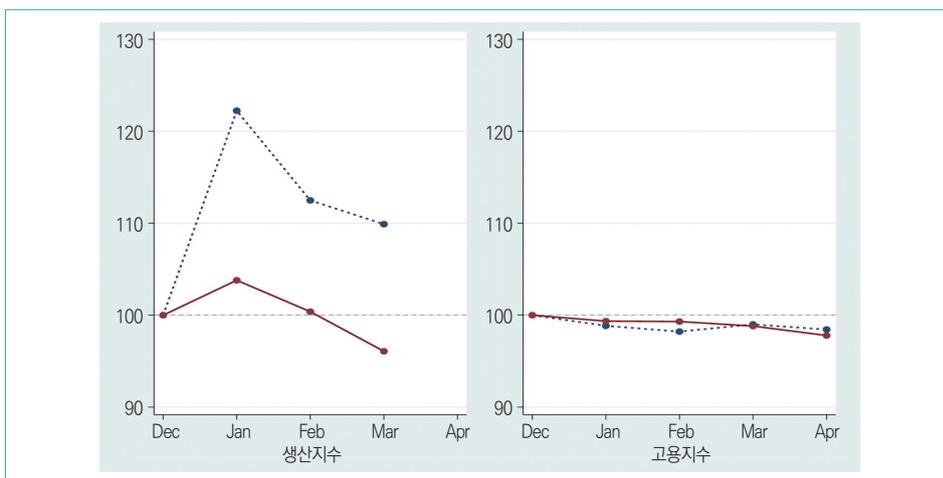
- 올해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 산업 취업자 수는 47만 6,000명 감소한 데 비해서 제조업은 4만 4,000명 감소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7%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3월의 경우 2만 2,000명 감소, 4월의 경우 4만 6,000명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되어 감.
- 제조업의 상용직 비중이 높은 점, 가동 일수 및 근로시간 조정, 유·무급 휴직 등의 대응, 작년에 이미 상당한 고용 조정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생산 충격이 큰 만큼 기존의 수주 물량의 소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주문 감소가 지속된다면, 고용에의 영향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요 자체의 급락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큰 상황

그림 1]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고용지수 추이



자료 : 생산지수(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출하기준, 계절조정)).

고용지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파란 점선(2018.12~2019.04, 2018.12=100), 빨간 실선(2019.12~2020.04, 2019.12=100).

2) 생산지수 4월 통계는 5월말 발표 예정이므로 미포함.

제조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에 따라서 고용의 변동 상황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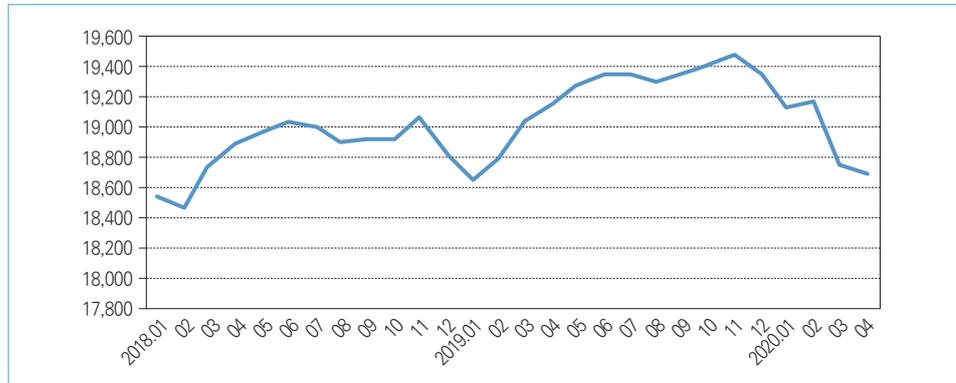
- 의복, 가죽·가방·신발, 인쇄 및 기록 매체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사회적 행사나 학교 활동 급감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
- 자동차의 경우 12월 이후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작년 동기와 비슷한 형태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수요 충격과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해서 완성차 기업 및 부품 기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

-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은 12월 이후 고용 증가세가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뿐 아니라 고령화 등의 메가트렌드적 영향으로 작년 동기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노동 수요의 증가 예상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충격이 거의 동시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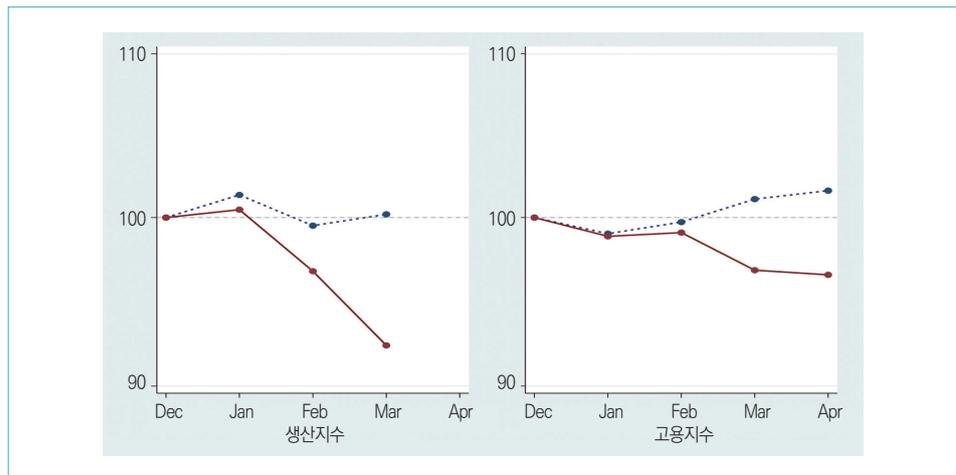
서비스업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서비스업의 생산지수와 고용지수 추이



자료 : 생산지수(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고용지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파란 점선(2018.12~2019.04, 2018.12=100), 빨간 실선(2019.12~2020.04, 2019.12=100).

2) 생산지수 4월 통계는 5월말 발표 예정이므로 미포함.

- 서비스업은 계절성이 있어서 동절기에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 1월 이후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2월 소폭 반등한 후 3월 큰 폭으로 하락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에 반영

대면 경제의 비중이 크고 내수 중심인 서비스업으로서는 국내 코로나19의 통제 여부가 고용 반등의 관건

- 서비스업 고용의 경우 올해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44만 5,000명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전월 대비로는 3월에 41만 8,000명 하락 후 4월에는 4만 9,000명 하락에 그침.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통제 여부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에 거의 동시에 영향

산업의 추세적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충격은 증가, 도소매업의 충격은 감소⁰¹⁾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마다 고용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올해 4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가 큰 업종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21만 1,000명), 교육서비스업(-13만명), 도소매업(-12만 2,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는 1년 동안의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변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이전인 12월의 업종별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1년 전 동기의 추세를 적용한 경우 고용 변화에 차이가 나타남.

- 이종차분법 [(2020년 4월-2019년 12월)-(2019년 4월-2018년 12월)]을 이용하여 전년 동기의 추세가 올해에도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나타날 수 있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함.
- 이종차분법으로 업종의 이전 고용 추세를 고려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큰 감소(-31만 1,000명)를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5만 3,000명) 순으로,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종에서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값보다 감소폭이 확대됨.
- 도소매업은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 규모로는 12만 2,000명인데, 이미 추세적으로 취업자 감소가 강하게 나타난 서비스 업종임. 고용 감소 추세를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 감소폭은 상당히 줄어들(-2만 8,000명).

01) 제조업의 업종별 추세를 고려한 분석은 아직 고용 영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4월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제외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사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던 업종이므로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7만 7,000명 증가하여 양호한 고용 성적을 보였지만, 기존의 빠른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고용 충격이 대체로 큰 업종임(-10만 1,000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만 1,000명 증가하였지만, 작년부터 빠르게 증가한 야외 여가 활동 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영향이 큼(-7만 8,000명).
- 금융 및 보험업이나 정보통신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1만 1,000명, 7,000명 감소하였지만, 작년의 고용 추세를 고려한다면 고용이 오히려 소폭 상승(각각 1만 9,000명, 2만명 증가)하여 서비스 업종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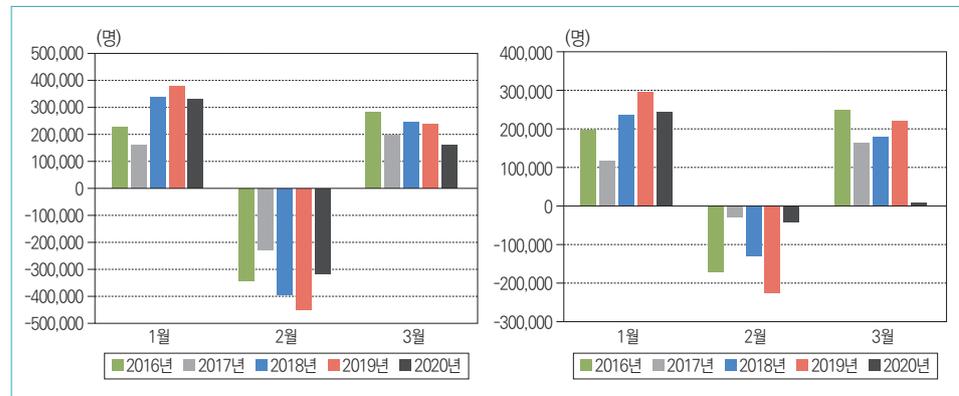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비대칭적 충격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에 피해가 집중

- 올해 3월 기준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는 22만 9,000명 감소하였는데, 동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만 2,000명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82%를 차지
-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절반 정도(52%)인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으로 고용 충격이 집중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 실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고용 충격 우려

그림 5] 전월 대비 고용보험 상실자 변화 그림 6]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변화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주 : 고용보험 4월 통계는 5월말 발표 예정.

- 고용보험 상실자의 변화는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음. 올해 3월 기준 전월 대비 고용보험 상실자 수가 최근의 다른 연도에 비해 낮아 고용보험 일자리의 고용 유지는 좋은 성적
- 반면에, 고용보험 취득자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전월 대비 변화는 8,000명 수준으로 2019년 22만명, 2018년 18만명에 비해서 급감한 상태
- 국내 노동시장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 해고보다는 신규 채용 조절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실직의 문제는 대규모 예산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의 급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고용 충격 우려

산업별 외부 충격과 추세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현재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대비가 필요

- 서비스업은 생산 충격과 고용 충격의 시차가 짧지만, 제조업은 수주 물량 확보량 등에 따라 생산 충격이 고용 충격으로 전이되는 데 다소 시차가 생길 수 있음.
-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진정됨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중심의 제조업의 경우 해외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여전히 심각

업종별 상황이 다른 만큼 산업별 변화에 조응하는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현재 우리 산업은 코로나19의 충격과 함께 자동화,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함께 겪고 있음.
- 업종별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업종별 맞춤 지원 필요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혁신 필요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문제

-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의 미가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시·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자 등)를 중심으로 발생
- 신규 채용의 감소가 심각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어려움 예상

신규 채용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 회복이 향후 보다 강조될 필요

- 현재는 기존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조
- 그러나 고용 유지의 강조는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 특히 청년층의 취업 문제 해소에 한계
- 현재 신규 채용의 정책적 주안점은 공공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산업과 경제의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비상 상황에서의 한시적 대책이라는 한계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 (flexicurity)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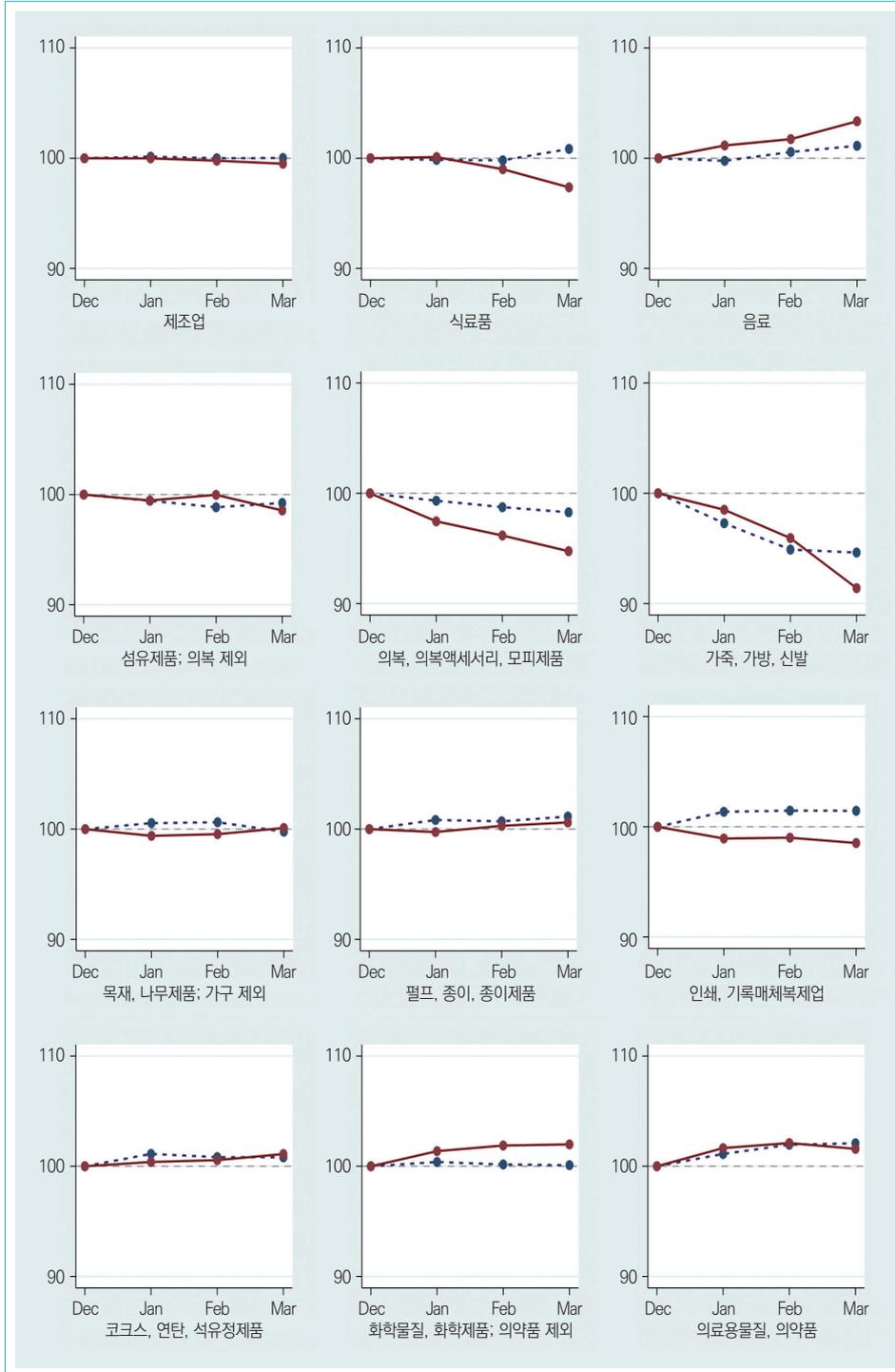
-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대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기존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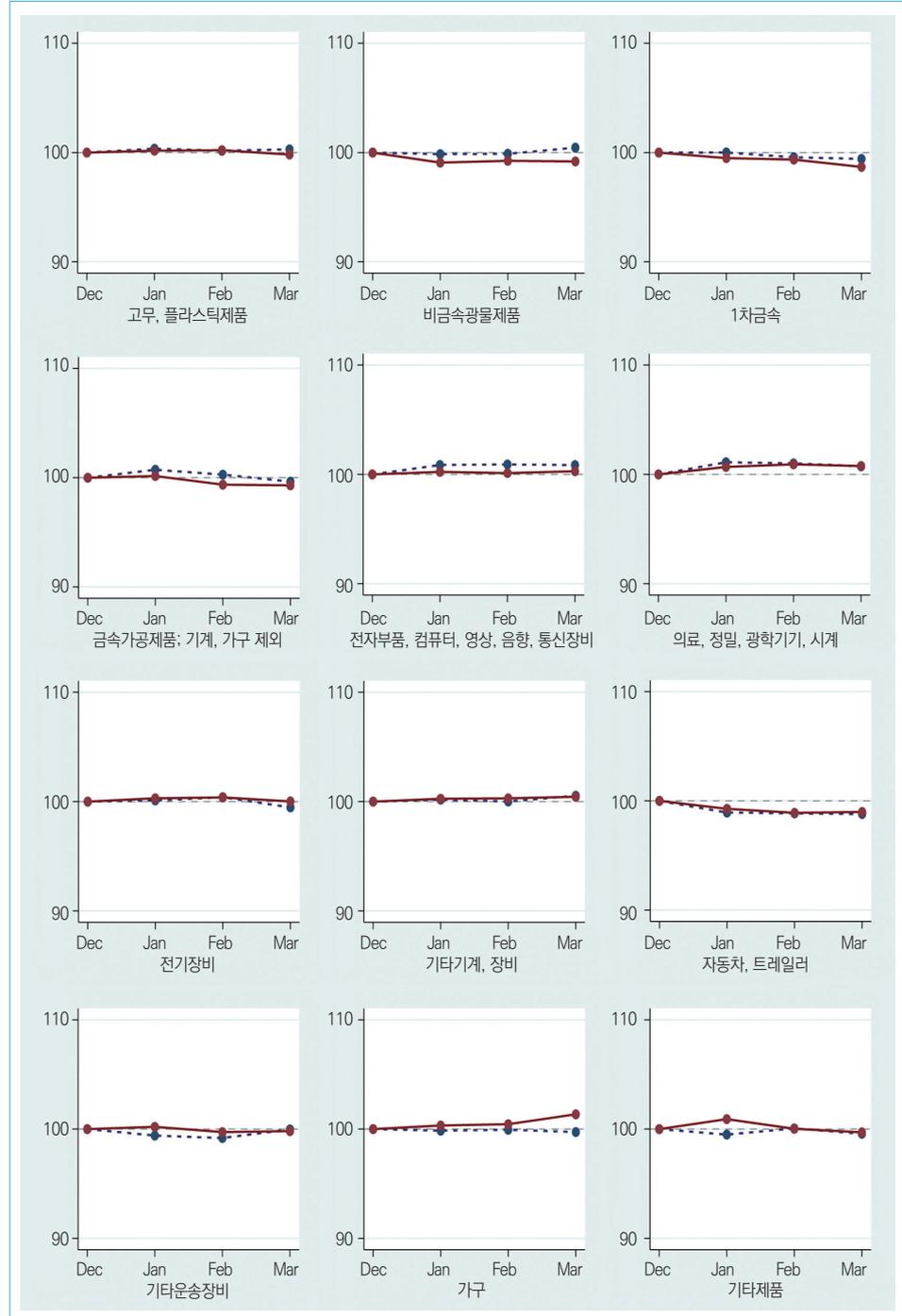
-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적 충격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적 변화는 산업구조조정의 상시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존의 교육·훈련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짐.
- 대학의 학과 정원이나 전공 선택의 유연성,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한 직업 훈련의 적합성,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의 효과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된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필요
-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는 상시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역량 개발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교육·훈련 체계의 검토와 개선이 요구됨.

김 주 영 (연구위원·산업고용정책실) · (부연구위원·산업고용정책실) k jy@kiet.re.kr 044-287-3051	길 은 선 (부연구위원·산업고용정책실) · (전문연구원·산업고용정책실) egil@kiet.re.kr 044-287-3152	임 은 정 (전문연구원·산업고용정책실) ejlim@kiet.re.kr 044-287-3924
---	--	---

부록 그림 1] 제조업 업종별 고용 지수(2018.12~2019.03 vs 2019.12~2020.0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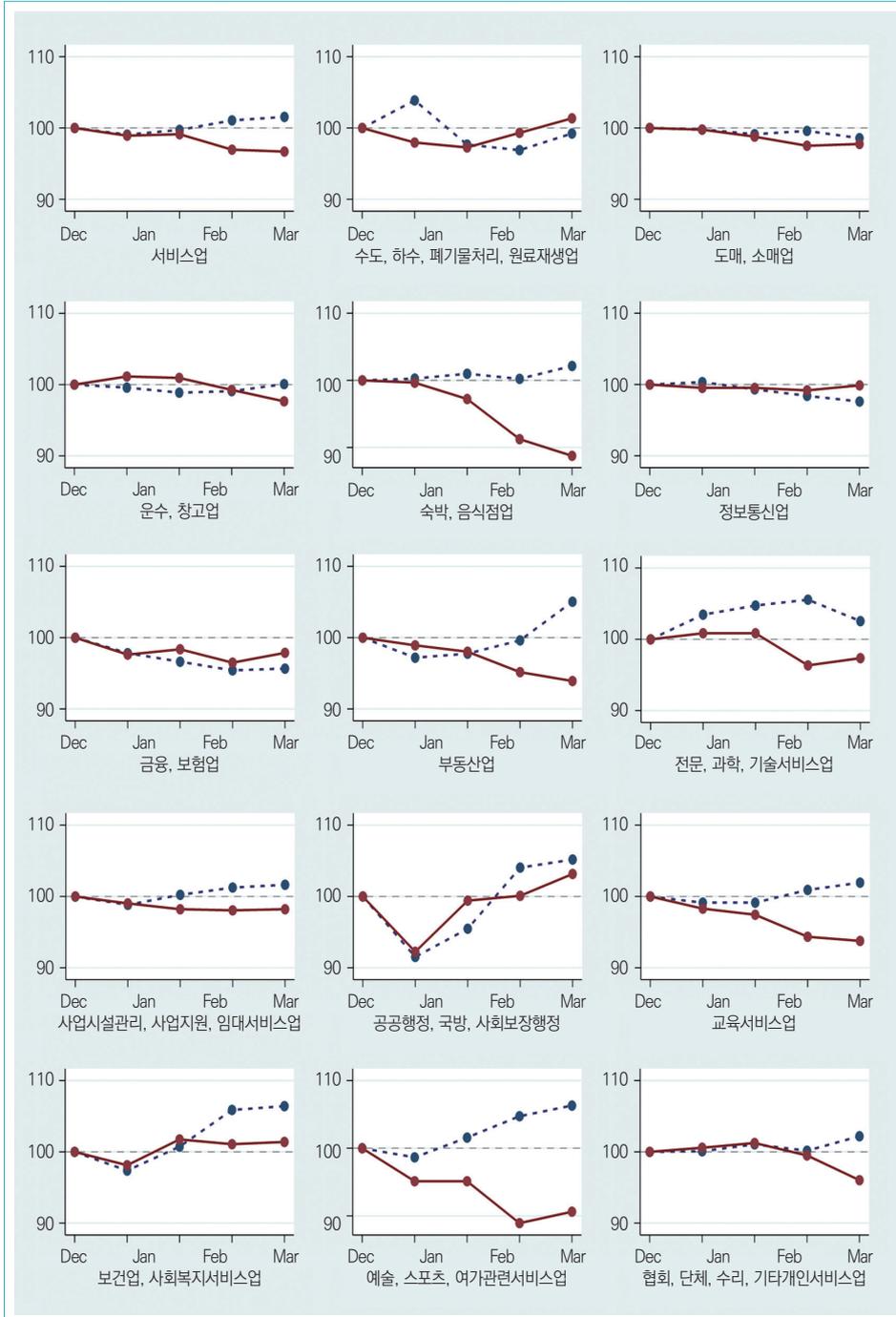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주 : 1) 파란 점선(2018.12~2019.03, 2018.12=100), 빨간 실선(2019.12~2020.03, 2019.12=100).

2)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3) 사업체노동력조사 4월 통계는 5월말 발표 예정.

부록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 지수(2018.12~2019.04 vs 2019.12~2020.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주 : 1) 파란 점선(2018.12~2019.04, 2018.12=100), 빨간 실선(2019.12~2020.04, 2019.12=100).
 2) 2020년 4월 자료 반영.

